“혜암당 성관 대종사, 유훈 새기겠습니다”

해인사, 혜암당 성관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내 대적광전 및 비림서 봉행
육성법문 청취, 가르침 되새겨
석가모니불 정근하며 탑돌이


합천 해인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내 대적광전과 비림에서 ‘혜암당 성관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를 열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3주기 추모 다례재가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동참대중들은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대종사의 뜻을 기렸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내 대적광전과 비림에서 ‘혜암당 성관 대종사 23주기 추모 다례재’를 열었다.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해인총림 방장 대원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전계사 무관 스님, 원로의원 원각 스님, 세민 스님, 혜암 문도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과 신도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대적광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재는 거불, 방장스님 헌향 및 헌다, 종사영반, 추모 입정, 육성 법어, 대중헌화, 행장 소개, 문도대표 인사, 회향게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 다례재에 참석한 대중스님들은 혜암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어를 청취하며 그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대표 성법 스님은 “백번 싸워 백번 이겨도 한번 참는 것보다 못하고, 만번이나 구구절절 바른 말을 해도 한번 침묵한 것보다 못하다”는 혜암 대종사의 게송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동참대중은 해인사 비림에서 혜암 대종사의 부도전을 참배했다. 헌향, 헌다, 죽비 삼배,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했다.

한편,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920년 음력 3월 2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1946년 합천 해인사에 출가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하고, ‘성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자운·우봉·보문·도우·법전·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2001년 12월 31일, 음력 11월 17일 오전,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공부 잘하라’고 당부한 후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세수는 82세이며 법랍은 56년이다.

서산 보원사, 무차수륙대재 학술대회

대웅전서…수륙재 현대적 해석



보원사수륙대재설행위원회(위원장 정경 스님)와 서산불교연합회(회장 혜산 스님)는 지난해 12월 13일 보원사 대웅전에서 ‘제4차 보원사 무차평등수륙대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전통과 현대 의례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내포가야산성역화추진위원장 정범 스님, 보원사수륙대재 설행위원회 정경 스님, 서산불교연합회 회장 혜산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과 수덕사 강원, 율원, 염불원 스님 및 보원사 신도가 동참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마산 정법사, 수계법회 봉행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지난해 12월 14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삼귀의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을 전계 아사리,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이 증명 아사리, 통도사 율원 교수사 현정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참여했다.

수계법회는 영축불교대학 학인과 재가불자 312명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참 불자로 거듭났다. 대자유치원 원생과 영유아 18명, 문수선음합창단, 정법어린이문수회의 어린이와 가족 99명도 함께 계를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 조계종 순례길로 개발돼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이 지난해 12월 16일 “20번째 순례길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산들바람솔숲길)’를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산 통도사 무풍한송로(산들바람솔숲길)’는 통도사 산문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약 1.2km에 달하는 ‘무풍한송로’를 걷는 코스다.

수령 100~200년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자리한 무풍한송로는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흙길이다. 이 길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천년고찰 제15교구본사 통도사를 걷다 보면 유서 깊은 전각과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금강계단을 만나볼 수 있다. 전체 코스는 약 2km이며, 왕복 2시간이 소요된다.

포교원이 개발한 순례길 팜플렛은 조계종 홈페이지-포교-포교자료-법회와 설법-문서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해, 사찰의 아름다운 길을 국민과 함께 사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무문관 개설 선지식 정영 스님을 기리다

12월 15일 17주기 추모다례
문도들 “열심히 정진” 다짐


계룡산 갑사 산내암자 대자암은 지난해 12월 15일 경내 대웅전에서 영파당 정영 스님의 입적 17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한국 최초로 무문관을 개설한 영파당 정영 스님의 다례재가 봉행됐다.

계룡산 갑사 산내암자 대자암(주지 구전 스님)은 지난해 12월 15일 경내 대웅전에서 영파당 정영 스님의 입적 17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갑사 조실 능엄 스님, 신원사 화강 스님, 금용암 두타 스님, 대각사 주지 보성 스님, 동혈사 종성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자리해 분향과 헌다를 올렸다.

이어 정영 스님 행장 소개가 이어졌다. 영파당 정영 스님은 1923년 12월 25일 경상 창원에서 출생, 1940년 만공 스님을 은사로 1942년 해인사 법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7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54년 정화 운동 당시 동산, 효봉, 청담 스님과 함께 불교 정화에 앞장섰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등 종단 내 소임을 맡았고 천축사, 봉은사, 망월사, 갑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4년 서울 도봉산 천축사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무문관을 개설하여 6년 결사를 했다. 1993년 계룡산 대자암의 제2의 무문관인 삼매당을 열고 2007년 충남 공주시 계룡산 갑사 대자암에서 세수 84세, 법랍 66세로 입적했다. 대각사 주지 보성 스님은 “큰스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데 잘되지 않는다. 스님 볼 면목이 없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여러분들도 큰스님처럼 되길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정영 스님의 손상좌 구전 스님은 “눈이 내리는 날, 큰스님의 기일에 이곳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송광사 신도회, ‘행복 바라미 순천 문화제’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신도회(회장 이경연)가 지난해 12월 14일 순천 대승사 경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 바라미 순천지역 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문화제는 지역주민과 함께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상생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열렸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나눔 메시지를 통해 “행복을 위한 길은 여러 개지만, 많은 것을 나누면 모든 이가 행복해진다. 진정으로 행복한 길은 나눔과 나 자신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소원정사, 백미 3000kg 나눔

지역학교 통해 위기가정 지원



광주의 나눔사찰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가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자비신행회에서 ‘도계 스님의 아름다운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해 백미 3000kg을 나눴다.〈사진〉

백미는 광주지역 30여 개 초·중학교를 통해 지역 위기가정에 전해질 예정이다.

주지 도계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 선생님들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정대행)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총무부장 선행
교육부장 법천
포교부장 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